

다산포럼

누가 미친 것일까? 분노로 탈주하는 재난영화들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태양은 뜨겁고 사방이 건조하다. 오래 전 ‘아라비아의 로렌스’(1962, 데이비드 린)에서 봤던, 씩누렇고 광활한 사막의 열풍에 휘날리던 장옷 이미지가 순간 떠오른다.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전문가들 이미지를 접해서일까?

학교에도 열기 어린 바람이 분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재난영화의 현실로’ 같은 기사가 난무하며 재난영화가 공공의 매토포가 되었다.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덮친다!’란 문구를 내걸었던 ‘감기’(2013, 김성수)를 재평가하

는 열기가 일고 있다. 영화와 현실이 오버랩되면서, 관람 당시 상투성을 비난했던 점을 반성하는 글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극장가는 한산해졌다. 개봉을 연기한 영화들도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2015, 조지 밀러)는 막강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현실을 바라보는 창문인 영화 세상의 유사체협 매혹이 재난 코드에 접화된 것이라.

핵전쟁으로 멸망한 미래 지구, “누가 미친 건지 알 수 없다. 나인지 이 세상인지...”로 포문을 여는 이 작품은 막강한 독재자 임모탄이 가끔씩 조금 내려주는 물을 받아먹으며 사는 노예 같은 사람들의 비참한 풍경을 보여준다. 임모탄을 지키는 워비어들은 맥스(들 하디)를 끌고 다니며 피주머니로 활용하는 권력 광신도 집단이다.

여기에 여전사 퓨리오사(샤를리즈 테론)가 등장한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며 탈주하는 임모탄의 다섯 아내를 숨긴 채 퓨리오사는 분노의 탈주를 벌인다. 물이 있는 녹색 땅을 찾아 나선 황사 속 탈주는 시청각을 사로잡는 액션 장면들로 펼쳐진다. 미친 맥스보다 더 격정적인 소름감

에 빛나는 여전사 이미지는 스크린을 뒤 흔든다. 권력남에게 기생하는 인생길을 가던 다섯 여자가 투사로 진화하는 과정은 약자들의 연대를 뜨겁게 보여준다.

이런 약자의 연대는 ‘괴물’(2006, 봉준호)에서도 관건으로 작동한다. 지난 5월 말, 폭스뉴스는 “한국 내 탄저균 유출로 미공군 5명, 미육군 10명, 정부계약인 3인, 시민 4명, 총22명이 치료 중”이라고 알려준다. 한국의 미 공군기지에 보낸 탄저균 샘플의 존재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 보도한 것이다. 미군 측이 먼저 토로한 탄저균 배달 소식은 ‘괴물’의 첫 장면을 상기시킨다.

2000년 2월 9일, 푸른 톤의 실험실에 두 남자가 서 있다. “미스터 김, 나는 먼지가 제일 싫어요.”하며 삼급차 백인이 김씨에게 먼저 긴 병에 든 포뮬 알데히드를 하수구에 쏟아 버리라고 지시한다. 그건 한강에 독극물을 버리는 것이라며 거부하자, 그는 이렇게 유연하게 명령한다. 한강은 크고 넓으니 마음을 한강처럼 넓게 갖고 쏟아 부으라고. 6년 후, 그 결과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실제로 벌어진 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에 영감을 얻어 상상해 낸 ‘괴물’은 다시 불

수록 우리 속 ‘괴물’을 폭로한다.

괴물 바이러스에 접촉하여 포획되었던 강두(송강호)는 전문가가 틀린 영어에서 ‘노 바이러스’를 알아듣는다. 거짓으로 통제하는 공권력을 벗어나 자력 구제에 나선 어리바리한 강두 가족의 탈주는 공포가 깃든 긴장감을 블랙코미디적 유머로 만들며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재난영화로 보는 재해 현실’ 강의를 준비하며 영화를 다시 보다 발견한 한 장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폐쇄된 원호대교 주변부 한 구석, 노란 옷으로 방역 무장한 관리요원이 주위 눈치를 보며 슬며시 젖은 만원권 지폐를 줍는다. 그런 모습은 세월호 선장의 유사 행동을 떠오르게 만든다. 재난 상황에서도 눈치 보며 돈을 챙기는 요원은 권이여 괴물에게 잡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명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장면을 세월호 이전에 연출한 봉준호 감독의 솜씨에서 예술의 예지적 감성을 발견한다. 바로 이런 감성이 작동하기에 막강 권력의 파장 속에서 다수 약자의 불안과 좌절감, 저항의 욕망을 먹으며 재난영화는 나날이 성장하는 것이라.

NGO칼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용 제약 없어야



유현섭
광주광역시제장애인협회 사무처장

“제가 이곳에 3번을 다녀갔는데 그때마다 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돌아보니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 깊은 반성과 함께 이동 약자들의 편의시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편의시설 사용자점검을 마치고난 광주시의회 모 의원의 한 말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축물을 아름답게 지어아 하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만 그 아름다움에 앞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과 편리다. 국가, 문화, 성별, 나이,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그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분리·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건물이 다중이용시설인 공공건축물 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서 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전과 편리성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낙제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외부로부터 각 출입구까지의 접근성, 각 건물의 주출입문·경사로·접사블록·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건물 간 이동성, 화장실·관람석·휴게실 등 편리성, 화재·재난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피난·대피시설, 어느 것 하나 대로 된 것이 없다. 한 마디로 2015년에 완공을 앞둔 건물은 안전과 편의성 면에서는 8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

er-free)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의무화(공공건축물에 적용) 된다. 이런 시점에 최소한의 법적 요구를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마저 충족지 못한 건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편의시설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작게는 4·19·5·18 등 광주정신을 담아야 하고 크게는 아시아문화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요람이 되어야한다. 이런 무형의 가치와 콘텐츠(Contents) 못지않게 건축물로서의 가치와 상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문화전당은 1년 농사를 목표로 하는 비닐하우스나 일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다. 7500여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으로 건축이 되는 문화전당은 적어도 100년 대대손손 물려 가야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름다움과 함께 안전과 편리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했다.

우리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보면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양적 성장을 가져왔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

당히 개선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고통이나 어려움까지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서두에 모 시의원의 얘기를 인용한 것이다. 문화전당이 장애인당사자가 설거나 시공과정에 참여했다더라면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가 나서 접근권 대책위를 구성하고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여지구니없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나라와 도시의 인권수준은 장애인에 위한 제도와 도시환경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인권·민주·평화를 표방하는 광주라면 더욱더 이런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모든 사람이 어떤 제약도 없이 전당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보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예산 타령이나 물리적 환경 등을 이유로 편의시설을 외면시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한 환경이라면 모두가 편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

기고

U대회 지원 전세버스 차령 제한 과하다



나승애
광주전세버스조합 이사장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훌륭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도로정비, 공중화장실 관리, 가로수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등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친절서비스 및 기초질서 지키기 등 범 시민의식 캠페인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회 관계자 승승은 성공개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70개국 1만4000명의 선수단과 6000명의 심판 운영진 그리고 미디어진, 귀빈 등 2만여 명의 승승을 위해 1일 최대 1500대 이상의 차량이 투입 될 예정이다. 38개

의 대회 경기장과 32개의 훈련장이 광주와 전남·전북에 분포하고 있으며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으로서의 선수 승승에 500여대의 전세버스가 투입되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U대회에 기사자동차가 공식후원사중 하나로 참여한만큼 선수단 승승에 투입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기사자동차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은 관례가 되어 왔으며 대기업들은 후원을 해주고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는 마케팅 기회로 갖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연식을 제한함으로써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에 지역 업체의 차량보다 지역에 연고지가 없는 외부차량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형차의 경우 차고지가 없는 외부 차량이 유입될 경우 광주 도심 곳곳에 좁 더 신차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기사자동차의 경우 최근 신차가 거의 공급되지 않아 기사차를 계약한 업체에서는 차량을 공급받기 위해 많게는 1년

이상을 기다리는 불편함을 감수하였다. 기사차가 현대나 대우에 비해 차량 대수도 적으며 5년 이내의 차량은 더더욱 적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사용가능한 차량이 좀 더 투입될 수도 없게 배려했으면 한다.

행사의 성공여부는 보이는 외형적인 게 전부가 아니다. 건물과 도로 등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운영진과 시민들의 참여의식, 친절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다. 투입되는 차량의 연식을 제한하기 보단 기사들에게 친절을 교육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광주시민으로서 U대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나 아직은 그 열기가 직접 느껴지지 않는다. 점점 그 열기가 고조되겠지만 광주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광주 시민과 업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호응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일부에서 외면받는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 기관, 시민, 기업, 소규모 업체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성공적인 U대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반드시 이뤄야 할 꿈 광주 수소차 허브도시

광주를 ‘수소차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정이 시작했다. 광주시는 현대차 그룹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산업을 육성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현대차그룹과 협약을 맺고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진곡수소충전소에 전국 최초로 수소융합스테이션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구축하게 될 융합스테이션은 수소, CNG,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수소와 전기 등 무공해 청정에너지 생산하는 시설이며 판매·저장·분산발전까지 할 수 있는 복합 에너지 충전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와 관련 시는 부지 등의 인프라를, 현대차그룹은 각종 기술 제공 등을 통해 구축 작업을 지원한다.

“에너지 문제, 환경규제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친환경차 산업, 특히 수소차 산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수소차 허브도시 조성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 중의 핵심이다.” 운장현 광주시장의 말이다.

기업이 지역과 손잡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초기 단계인 세계 수소시장에서 광주가 ‘수소경제’의 리더로 발돋움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다. 우선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라인을 구축한 현대차 공장이 있는데다 국내 전체 수소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울산시가 저 멀리 앞서가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여주시는 부지 등의 인프라를, 현대차그룹은 각종 기술 제공 등을 통해 구축 작업을 지원한다.

“에너지 문제, 환경규제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친환경차 산업, 특히 수소차 산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수소차 허브도시 조성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메르스 악용·헛소문 유포 지금 이럴 때인가

메르스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온·오프라인에 넘쳐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를 악용하는 물자각한 사람들도 많아 눈총을 사고 있다. 호흡기 감염 우려 때문에 읍주단지 속을 하지 않는 틈을 노려 취중 운전하는 양측자들이 늘었다. 자신을 메르스 감염자라고 속여 경찰 출석을 거부한 사기 피의자도 있다.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몇 배나 바가지 씌워 팔아 먹는 일도 있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최근 화순보건소에 따르면 지역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임원해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화순에서는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환자가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

순창과 가까운 담양도 헛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순창 확진자가 담양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순창 확진자

의 머느리가 담양 금성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도 나돌고 있다. 담양보건소는 이런 소문이 돌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가 폭주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고흥에서는 평택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이 고흥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자 간담으로 사망했는데도 ‘메르스로 사망했다’는 헛소문이 돌아 해당 장례식장과 유가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여수에서는 보성 메르스 확진환자가 여수의 한 웨딩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사회가 보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 소동까지 벌어졌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당국은 주민 불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메르스 관련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내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을 악용한 비양심적 행태들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無等鼓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에게 붉은색은 우승을 의미한다. 타이거 우즈는 라운딩할 때 붉은색 셔츠를 즐겨 입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일도 많았다. 우즈는 붉은 옷을 통해 ‘우승은 내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한데 요즘에는 로리 매길로이가 붉은색 셔츠로 우즈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투자자에게도 붉은색은 기쁨을 주는 색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선 주가 변동 폭을 수치로 표시할 때 상승은 붉은색으로 하락은 파란색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승가는 붉은색 화살표로, 하락가는 푸른색 화살표로 표시한다. 투자자들은 붉은색 화살표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곧두 박질친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에 가격제한 폭(상·하한가)이 도입된 것은 1995년 4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처음이다. 정예로만 거래하던 개별 종목의 주가를 전일 증가 대비 상하 6%로 제한했다. 이후 1996년 11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동시에 ±8%를 적용한 후 코스피는 1998년 3월, 코스닥은 5월 각각 ±12%로 확대했다. 상하한가 폭이 ±15%가 된 것은 코스피가 1998년 12월부터였고 코스닥은 2005년 3월부터였다.

역대 연속 상한가 최장 기록은 운송업체인 동북이 가지고 있다. 동북은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유무상 증자를 호재로 2000년 1월20일부터 40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였다. 하한가 최장 기록은 1998년 4월 경북상호신용금고가 세운 42일 연속이다. 당시 이 회사 주가는 4790원에서 220원으로 95.4%나 폭락했다.

15일부터 가격제한 폭이 ±30%로 확대됐다. 하루에 주가 등락 폭이 최대 60%에 달한다는 얘기가. 상하한가 제도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대만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큰 나라에서 시장 혼란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가격제한 폭 확대가 결국 변동성 확대라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위함을 담보로 정부와 증권회사의 수입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자언론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55 (F A X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